재양군인신문

인 터 넷 향 군

www.korv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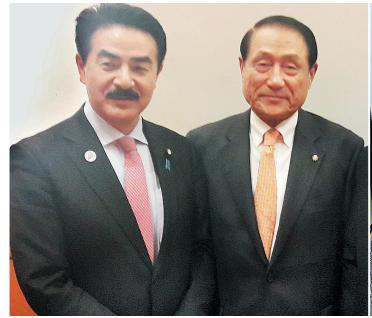
1962년 5월 16일 창간

THE KOREAN VETERANS NEWSPAPER

2019년 3월 1일 금요일 제812호

향군 회장단, 일본 방문 통해 갈등해소 계기 마련

전 현직 관계관 만나 해법 논의, "군사갈등 장기화 바람직하지 않다"





김진호 회장을 비롯한 향군 회장단이 2월19일부터 22일까지 최근 불거진 한일 간의 군사갈등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사진 좌)사토 마사히사 외무 부대신과 김진호 회정 (사진 우)전 일본 육상·해상·항공막료장이 주최하는 환영오찬 및 간담회에 참석하여 한일간 군사갈등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는 향군회장단.

정경두 국방·박한기 합참의장 방문, 방일결과 설명··· 향후대책논의

김진호 회장을 비롯한 향군 회 장단이 2월19일부터 22일까지 최 근 불거진 한일 간의 군사갈등 문 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일본 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30일 모리 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상 방한 당시 오찬 간담회에서 한일 간의 군사갈등 문제를 양국 군 원로들 이 나서서 해결해 보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향군 회장단은 방일 첫날인 19일 이수훈 주일대사를 예방하고 자위 대 예비역 단체로 민·군 가교역 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우회를 방 문하여 마사키(전 통막장) 회장과 만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 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우회는 1960년 설립된 일본 자 위대원들의 OB조직으로 '국민과 자위대의 가교 역할'을 제일의 목 적으로 하고 있으며 25만 여명의 회원을 가진 공익단체로서 회장과 이사장은 방위상이나 통막장, 막 료장을 지낸 인사가 맡고 있는 영 향력 있는 단체다.

이어 향군 회장단은 20일 도쿄 시내 음식점에서 전 일본 육상 ·

해상 · 항공막료장이 주최하는 환 영오찬에 참석하여 간담회를 갖고 최근 한일 간의 군사갈등 문제 해 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양국 군 원로들은 한결같이 "양국은 가까 운 이웃이며 함께 번영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서 군사·안보분야 만 큼은 긴밀한 공조 체제가 지속되어 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최근의 군 사갈등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 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날 아침 향군 회장 단은 사토 마사히사 외무 부대신

을 모리모토 사토시 전 일본 방위 상과 함께 조찬 간담회를 갖고 한 일 군사갈등 문제 해소와 우호 ·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 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본방문 마지막 날인 21일 향 군 회장단은 일본 통합막료감부 (우리의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하 여 군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최근 한일 군사갈등 해법에 대해 논의 하고 한국 군 원로들의 입장을 전

이날 향군 회장단은 이번 일본 방문에서 만난 일본 전 현직 관계 관과 군 원로들은 "양국의 군사갈 등의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다" 며 "전통적인 우호관계와 긴밀한 공조체제가 지속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군 고위 당국자 들에게 의견을 전했다.

또 향군 회장단은 이날 오전 제 일학도의용군 추모비를 참배하고 헌화했다. 재일학도의용군 충혼비 는 6 · 25전쟁이 발발하자 자발적 으로 참전하여 순직한 학도의용군 135명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됐 다. 이어 재일한국민단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60만 재일 동포들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진호 향군회장은 26일 오후 정경두 국방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을 방문하여 방일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갈등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 · 도 향군 정기총회 … 7개 지역 개선총회

북한 비핵화 정책 적극 뒷받침 호국 안보활동 적극 동참 해야

2019년도 향군 시 · 도회 정기 총회가 지난 1월31일 대구시회를 시작으로 3월7일까지 각 지역에 서 순차적으로 개최됐다.

2월 중에는 12일 부산시회, 14 개선총회로 진행됐다. 일 충북도회, 15일 대전 충남도회 와 서울시회, 20일, 전북도회, 21 을 순회하며 총회에 참석했던 김 일 경북도회, 22일 강원도회, 26 진호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향 일 광주 전남도회, 27일, 경기도 군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회와 제주도회, 28일 경남 울산시 모든 역량을 다해 국력을 결집시 회에서 총회가 열렸으며 3월7일 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정부 인천시회를 끝으로 시도 총회 일 의 정책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

정이 마무리된다.

특히 이중 서울시회와 부산시 회, 대구시회, 경기도회, 충북도 회, 대전 충남도회, 경북도회는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전국

라고 밝혔다.

또 "우리 국군의 위상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안보에 가 장 중요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 하는 데 모든 역점을 두고 안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덧붙 혔다.

아울러 회원들에게 "어려운 국 가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향군이 추진하고 있는 호국 안보활동에 열과 성을 가지고 적 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향군 정기총회

'10년 이상 20년 미만 군복무자' 국립묘지 안장폐지 반대

향군, 국군장병 사기 저하 … 국가보훈처 혁신위 권고 철회해야"



본회는 2월7일 보도된 국가보훈처 산하「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 내용중 '보훈 개념'과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장'에 대해 입장자료를 발표하고 "국가보훈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헌법적가치를 존중하라"며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공헌한 선열들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피 흘려 싸웠던 국군 장병들의 숭

다"며 "이는 「국가보훈기본법」제3조 1항②의 국가수호 또는 안전보장(호국)에 대한 조항과 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시킨 「제대군인지원법」을 경시하는 처사이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에 봉사하고자 장기복무를 지원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군 조직의 특수성



국론분열 우려되는 정책 추진 즉각 중단해야 장기복무자들의 희생 외면, 국가의 도리아냐



고한 희생과 가치가 훼손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훈제도는 국가 공훈에 대한 보상 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의하라"고 강 조하며 "아무리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고 하 더라도 북한 정권수립에 기여한 인물은 절 대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특히 보훈처 권고안 중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 군 복무자들을 제외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 때문에 진급이 안 되면 본의 아니게 전역 해야 하는 장기복무자들의 희생을 외면하 는 것은 국가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주장 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는 국론 분열이 우려 되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이를 즉각 철회 하라"며 전 국민의 관심사인 보훈 정책을 변 경하고자 할 때는 관련 부처 및 단체들과 충 분한 의견 수렴 및 논의과정을 거쳐 공론화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향군, '2019 한미동맹 후원 감사의 밤'서 감사패

향군은 2월15일 한미동맹재단(회장 정승조)과 주한미군전우회(이사장 월터 샤프)가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개최한 '2019 한미동맹 후원 감사의 밤' 행사에서 한미동맹재단으로부터 2017년 한미동맹 재단 설립이후 현재까지 꾸준하게 후원을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한 · 미 친선을 도모하고 한 · 미 동맹 증 진을 위해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서주석 국 방부 차관,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원인철 합참차장을 비롯한 군과 정부 인사,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과 김학용 국회 환 경노동위원장, 후원 기업대표, 개인 후원자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정승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사실상 한미동맹이 손상되면 안보도 물론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가 먼저 흔들릴 것"이라며 "지금 남・북・미 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좋은 기회들이 자칫 한미동맹의 손상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샤프 이사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올해 주한미군전우회는 한미동맹의 목소리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이를 위해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위대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더 공개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동맹 책자 발간, 전 세계 수백만명이 접근할 수 있는 SNS를 통한 주한미군전우회 홍보 활동, 주미 한국영사관 및주미 한국 재향군인회와 주한미군전우회활동 전파 등의 사업을 하겠다고 소개했다.



안보단신

병무청, 모바일 서비스 개선

병무청이 젊은 세대의 시각과 최신 트 랜드를 반영한 모바일 앱(이하 앱)을 구 축해 최적의 병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새 롭게 선보이는 모바일 서비스에는 우편 과 이메일로만 받아보던 현역병입영 · 동원훈련 통지서 등을 병무청 모바일 앱 과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아 볼 수 있도 록 확대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통지서 발송 서비스(카카오 알림톡)는 작년 10 월부터 시범 운영하였으며 작년 12월에 병무청 앱 구축을 완료하여 금년 1월 14 일부터 서비스를 실시, 현재 병무청 모 바일 앱과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통지서를 모바일로 받 으면 입영·동원훈련 일정 도래 시 캘린 더와 연계하여 개인별 자동알림 서비스 를 제공하고, 통지서 화면에서 연기신 청, 훈련장소의 날씨, 숙박·식당 정보 등입영 및 동원훈련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모바일 통지서 발송으 로 각종 통지서 수신의 선택폭이 확대되 고, 이를 통해 5년간 12억 원의 등기우편 발송 요금을 절감 할 수 있게 됐다.

KAL 납북 50년 간담회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과 1969년 KAL기납치피해자 가족회는 2월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AL 납북 50년, 납북자 송환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KAL기 납치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50명의 승무원·승객을 태운 강릉 발 서울행 대한항공(KAL) 소속 민간 여객기(YS-11)가 대관령 상공에서 승 객으로 가장한 고정간첩 조창희에 의해 북한으로 피랍된 사건이다. 이듬해인 1970년 2월14일 북한은 판문점을 통해 39명을 송환했으나 당시 MBC PD 황원 기자(납북 당시 32세)를 비롯해 11명은 50년째 고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연합훈련-대북외교 균형 유지 필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 연합훈련과 대북 외교적 노력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2월12일(현지시간)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군사훈련의 형식과 실행을 조정하는 4가지 부문인 규모, 범위, 양, 시기 등을조율함으로써 군사훈련에 대한 접근법을 도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군사훈련의 규모, 범위, 양, 시기 등에 대한 조정은 우리가 전투 준비 태세를 수용할 수 없는 수준까지 희생하 지 않으면서도 외교·정치적 상황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또 2월12일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등 전략적 도발이 마지막으로 일어난지 440일째 되는 날이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뚜렷이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한 뒤특히 비무장지대의 긴장 완화는 북한과 초기단계의 신뢰구축 조치를 가능케 했으며 군사 당국 간 실수와 오판 가능성 또한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특별기고

최근 한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

■한일 양국은 역사적, 전략적 운명 공동체

한일관계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 웃으로, 역사적으로는 문화 · 경제 교류가 활발했던 우방으로, 전략적으로는 외교 · 안보적 측면에서 북방대륙의 사회주의 세력과 군사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이다. 유구한 역사를 보았을 때 2 천여년이라는 긴 역사를 함께해 온 공동체이며, 삼국시대에는 해상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 상업적인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 졌고, 조선시대에는 통신사 등을 통하여 양국간 교역과 교류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왔다.

1950년 6.25전쟁시 일본은 UN군 기지 사용을 비롯해 우호적 지원국으로 지금도 요코스카 등 7개 후방지원 기지를 제공하 고 있는 우방국이다. 1960년 이후에는 일 본이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주의 체제 차단과 동북아 안정을 위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며 오 늘에 이르고 있다.

양국은 동북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거리상으로 200Km내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중국·러시아·북한과 같은 북방대륙의 사회주의 국가와 대처하고 있는 최일선국가이다. 중국의 세계 일류군대 건설전략과 북한의 핵·WMD 개발은 한일 양국의공동위협이며, 국익 우선주의와 민족주의에 기반한 대륙세력(중국·러시아·북한)의 남진정책은 자유우방인 미국·일본·한국의 동북아 안정정책과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장기집권에 성 공하면서 세력 확장을 통해 구소련의 전성 기를 재건하려하고, 중국은 중화사상 실현 을 위해 일대일로전략 구상과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며 주변국의 속국회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주 변국에 대한 도발을 지속해 왔으며, 국가 간 약속을 수시로 위반하고 지역 내 안정 을 저해하며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동북 아 패권경쟁에서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견 제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은 미국과 각각 동맹을 맺고 미 국을 중심으로 삼각 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 가로써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추구하는 운 명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최근 한일 간 갈등 상황

2018년 후반기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한일 양국 간 주요 갈등요인은 제주 관함식 욱일기 게양 문제로 일본 불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화해·치유재단 해산,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문제 등이라고 볼 수 있 겠다.

첫 번째 제주 관함식 관련하여 함상에 게양하는 깃발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 어 해당국가의 고유권한으로 해석 할 수 있으나 욱일기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과 한 국 국민이 느끼는 정서의 차이를 부정 할 수는 없다.

두 번째 강제징용 · 위안부 관련 문제에 대하여 일본은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고노 · 무라야마담화 등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 한일관계 발전에 단초를 마련하였고, 2015년도 한일 위안부 합의로 화해 · 치유 재단이 2016년도에 설립되는 등과거사 갈등에서 벗어나는 듯했으나 아베정부가 시작되며 강제징용 배상문제는 한일협정으로 종료되었다는 입장과 고노 · 무라야마 담화의 검증 등 역사 수정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2018년도에 한국 대법원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에 배상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다시 과거사 문제가 대두되었다.

세번째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관련 문제로 2018년도 12월 20일 한국의 군함(광개 토대왕함)이 북한의 조난 어선 구조 활동을 진행하던 중 일본 P-1초계기 위협 비행과 한국 군함의 레이더 조사 문제가 양국 간 갈등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한국에서는 일본 초계기의 위협비행이 있었으며 추적 레이다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추적 레이더를 초계기에 조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 간 다소의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로 4월에 계획된 서태평양 해군심포지엄(WPNS)에서 구체적인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사실 규명보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 는 현실은 미래지향적 양국관계에 손상을 가져 올 수 있다. 그동안 한일관계가 악화 될 때도 안보협력에서는 이해가 일치했고 양국 군 사이에는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 하였음을 상기하여 빠른 시간내에 정상화 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갈등 해소 사례

이러한 부분을 풀어나가기 위한 과거 국 제적 갈등해소 사례를 살펴보면 1998년 10 월 8일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는 양 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 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보고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 한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공통의 결의를 선언하였다. 이와 더불어 채택된 액션플랜은 5가지(양국 간 대화 채 널의 확충,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 한 협력,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강화, 범세계적 문제에 관한 협력강화, 국민교류 및 문화교류의 증진) 영역을 상세하게 명 시하고 적극 추진하여 한일 양국간 발전을 도모하였다.

두 번째 1963년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과 독일(당시 서독)의 아데나워 총리는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독·불 우호조약을 체결을 들 수가 있겠다. 이 조약은 유럽가족공동체 재건을 위해 70년간 3차례에

걸쳐 피비린내 나는 전쟁피해를 입은 프 랑스가 유럽의 평화와 미래를 위해 적이 던 독일에게 기분좋게 손을 내밈으로써 성사되었다. 이때 독일 총리가 "독일이 전 범의 소명을 벗고 재통일을 이루도록 프 랑스가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전에 당한 뼈아픈 기억을 잊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를 계기로 프랑스와 독일은 역사의 동반자로 유럽연합(EU)을 이끄는 쌍두마차가 되었으며, 의기투합하여 비약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하였다.

그 외에도 5만 여명의 젊은이들이 희생 된 미국이 베트남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 고 관계 개선을 통해 동남아 안정과 국가 발전을 이뤄낸 사례 등이 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 방향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웃국가이 며, 운명공동체인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 적 발전 방향은 무엇일까?

첫째, 공동 운명체로서 공동의 목표와 가치실현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본은 2천 여 년의 긴 역사속에 우호친선 교역국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핵심적,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할 동 반자이다. 양국은 동아시아와 아시아-태 평양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상호 협력 을 적극적으로 이뤄내야 할 것이며, 과거 사를 직시하고 양국의 관계발전을 모색할 시점임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작 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미래지향적 전 략적 사고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로써 양국간 고위급 대화협의체 구성, 공동 목표에 대한 상호 정책자문, 교류증 진을 위한 다양한 민간기구 창설 등이 있 겠다.

둘째, 동아시아와 전 세계의 최대 안보 위협인 북핵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한일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본은 세 계 어느 나라 보다 핵에 대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북핵과 미사일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가장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히 한국과 일본이 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 화 프로세스에 일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발굴하고 협조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일관계가 향후 북일관계 의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북일 관계에서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본 인 납치문제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노력할 때 보다 더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에 비 해 절실한 입장이 아닐 것이다. 한일 간 확고한 안보체제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협조하에 직 · 간접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미국의 협상력 제고에 기여할 필요가 있

셋째, 한·미·일 중심으로 동북아 세력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

은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에 공동으로 소속되어 있고 군사우호관계이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전략자산이 일본을 통해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에서의 세력균형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최근 동북아 세력균형의 가장 큰 요인으로 중국의 부상을 들수 있겠다. 중국의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동북아 세력균형을 주도 조정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공조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한일 경제협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지대 한 기여를 하였으며, 한국이 세계 10위 권 의 경제국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준 것 은 사실이다. 최근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 성장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동북아 경제 질서를 균형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국과 일본의 경제협력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

다섯째, 비정치적 역할에 의한 한일관계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최근 한일관계는 경제·사회·문화 등의 비정치적 영역에서는 발전과 진전을 이루었으나 외교·안보·역사문제 등 정치적 영역에서는 정체, 악화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실타래처럼 얽힌 한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발씩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로써 정치적 영역과 외교·군사적 영역을 분리하여 외교·군사적 영역을 분리하여 외교·군사적 영역의 안정과발전의 틀을 마련한 후 이를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 파급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향군의 역할

1974년 2월 9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일본 대우회(자위대출신 예비역 단체)가 상호협력 합의문서를 교환 후 활발한 교 류가 있었다. 그러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중단되었으나 민간외교차원에서 향후 이 를 재개하여 활성화 할 필요가 있겠다. 예 비역들은 현역시절을 통하여 쌓아온 경력 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직에 있는 현역 정 치인이나 군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정부 채널을 이용시 정치적 · 언론적으로 예민 한 부분이 있어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음으로 한일 예비역들이 보다 적극 적으로 활동하고 상황에 맞는 역할을 수 행함으로써 보다 발전적 한일관계를 이루 어 내야한다.



홍 민 향군 안보전략연구원장

영면의 땅으로 한국 택한 영국 6·25참전용사

고 윌리엄 스피크먼, 부산 유엔기념공원 안장



고 윌리엄 스피크먼

6 · 25전쟁에 참전한 영국 유엔참전용사로 한국과 영국에서 최고의 무공훈장을 받은 고 윌리엄 스피크먼씨의 유해가 부산 유엔기념 공원에 안장된다. 유엔참전용사의 부산 유엔 기념공원 사후 개별안장은 스피크먼씨가 7 번째 이다.

스피크먼씨는 6.25전쟁 당시 근위 스코틀 랜드 수비대 1연대 소속으로 참전했다. 1951년 11월4일 새벽 4시 임진강 지역의 마량산 전투(317고지) 육탄전 과정에서 스피크먼씨도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1952년 1월 영국으로 귀국, 영연방 최고 무공훈장(Victoria Cross, 빅토리아십자훈장)을 엘리자베스 2

세 여왕으로부터 수여받았다.

6 · 25전쟁이 끝난 후 스피크먼씨는 세 차례 한국을 방문했고 2015년 4월 방문 당시 6 · 25전쟁에서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수훈한 유일한 생존자였던 그는 본인이 40여 년 동안 정부기념식 등에 착용했던 십자훈장(재발급분, 원 훈장은 스코틀랜드 전쟁기념관에 보존)과 영국정부로부터 받은 기념메달, 해외파병 메달 등 총 10점을 한국정부에 기증했다.

이후 2015년 7월, 7·27 정전협정의 날을 기념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최고 무공훈장 (태극)을 수여받기 위해 한국을 다시 방문했 _}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 사후 개별안장은 지난 2015년 5월 프랑스 참전용사 레몽 베르나르씨 안장식이 처음 개최된 후 영국 참전용사 로버트 맥카터씨('15.11월), 미국 참전용사 버나드 제임스 델라헌티씨('16.2월), 네덜란드 참전용사 니콜라스 프란스 웨셀씨('16.5월), 프랑스 참전용사 앙드레 벨라발씨('16.10월), 네덜란드 참전용사 요한 테오도르알데베렐트씨('17.9월) 등 지금까지 총 6번이 진행됐다.

육군 55사단,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활동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는 육군 55사단 장병들.

육군55사단이 조류인플루엔 자(AI)를 선제적으로 예방하 기 위해 2월말까지 예하 화생 방지원대 병력과 KM9 제독차 를 투입해 경기도 안성시 한 천·안성천 일대 약 7km 구간 에 AI 확산 대비 방역 지원활 동을 전개했다.

이번 방역지원은 최근 경기 도 용인·이천·안성지역 등 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 자(AI) 항원이 발견됨에 따라 예방활동이 절실한 상황에서 실시됐다.

부대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변 도로 및 천변 일대의 철 새도래지를 소독하는 등 병원 균 차단에 주력, 하루 1만 2000L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제독수를 살포했으며 지자체 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 필요사 항들을 적극 지원했다.

공군16전비, 의료 · 이발 봉사활동

공군16전투비행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비행단 인근 마을에서 '찾아가는 의료 및 이발 봉사'를 전개했다. 16전비 이발 군무원 2명과군의관 1명은 경북 예천군 유천면송지리 마을회관을 찾아 지역 주민들의 머리를 다듬어 드리고 염색을 지원하는가 하면 한방 의료봉사를 했다. 특히 한방 군의관은건강상담, 한방 치료 등 수준 높은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마을 어르신 250여명의 온천 나들이를 위해 차량과 비용을 지원했다.

비행단 인근 지역 주민과의 유대 강화 활동을 주관하고 있는 16전비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6여단 '붕어빵 나눔' 행사



해병대 6여단이 추운 겨울을 맞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를 펼쳐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6여단은 관할하고 있는 대청도와 소청도에 흔한 패스트푸드점이 하나도 없다는데 착안, 2월말까지 사랑의 붕어빵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장병들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순회 방문해 지역 주민들에게 붕 어빵을 직접 구워주며 사랑을 나 누었다. 봉사에 참여한 해병대 장 병들은 "추운 날씨였지만 주민들 이 붕어빵을 드시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병영칼럼

두 아들 남자로 만들어 준 대한민국 국군 자랑스러워

지난 2월 4일 큰 아들의 전역일. 2017년 5월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소한지 20개월이 조금 넘은 기간이 흘러 자랑스러운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저의 품으로 돌아왔다.

입대 전 병역판정검사 당시 신장 183cm에 체중 58kg으로 신체등급 3급을 판정 받고 경 기도 포천에 있는 모 군수지원 사령부 예하의 급양대에 보급 병으로 보직 받아 임무 수행했다

군 생활하면서 체력단련을 열심히 했는지 특급전사가 되 어 포상 휴가도 여러 번 나왔 었다.

육군 소령이었던 아빠를 생각하며 간부들이 지시하는 것은 모두 싫은 내색 없이 시키는 대로 다 했다 고 한다. 그결과 자신의 임무 외에 부대내의 다른 보급병들의 업무까지 모두 다 할 수 있을만큼 부대 업무에 숙달되었다 한다.

전역할 당시 아들의 몸무게 는 75kg 이었다.

보급병이었기에 무거운 물 건을 많이 들고 나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체력이 좋아 졌을 수도 있겠지만 아들은 틈나는 대로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한다.

입대 전 편식을 너무나 많이 했고, 컴퓨터 게임을 너무나 좋아하던 아들이었지만 지금 은 이것저것 가리는 것 없이 잘 먹는 대식가가 되었고, 몸 통은 어디 하나 살이 삐져나온 곳 없는 근육질의 사나이가 되 었다. 둘째 아들은 강원도 양구에서 운전병으로 복무중이다. 둘째 아들은 입대 전에 신장 183cm에 체중이 106kg이었었고 병역판정검사에서 3급을 받았었다. 현재 둘째 아들의 체중은 90kg이 살짝 넘는다.

입대 전 삐쩍 말랐었던 큰 아들은 근육질의 사나이가 되 어 돌아왔고 과체중에 걷기조 차 싫어하던 둘째 아들은 건강 한 몸매의 다부진 체격의 사나 이가 되어가고 있다.

아울러 큰 아들이 전역 전에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하고 나왔다고 했다. 둘 째 아들도 입대 전에 생각했던 자신의 진로와는 다르게 좀 더 현실적인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한다.

어떻게든 병역을 기피하려고 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나는 두 아들을 통해 군대의 바람직한 순기능을 체험하고 있다.

군대가면 군 생활 동안 인생을 좀 먹는다는 생각은 군 생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결과가 180도 달라진다는 것을 두 아들을 통해서 새 삼스럽게 배운다.

군복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큰 아들과 열심히 군복무를 하고 있는 둘째 아들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남자로 만 들어준 대한민국 국군이 자랑 스럽다.

박기용

전북 순창군 향군 사무국장

지역 아동에 학습 지원, 청소ㆍ시설물 보수

해군 2함대

해군2함대 253고속정편대 장병들이 각각 20여 명씩 나뉘어 부대인근 서평택 방정환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습을 돕고 청소 및 시설물 보수활동을 지원했다.

해군장병들은 어린이들의 수학·영어 등 어린이들이 평소 이해하기 힘들었던 과목들의 개념을 알기 쉽게 가르쳐주고 이를 적용한 문제까지 함께 풀면서 '일일 선생님'역할을 했으며 나머지 장병들은 겨우내 미처 손보지 못한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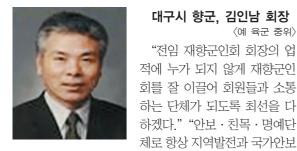


동센터의 낡은 건물과 시설 등을 정비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데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에 참여한 장병들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인성도 함양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을 축하합니다

지역 향군 이끌어 갈 새 일꾼 … 신임 시·도 및 시·군·구 회장



대구시 향군, 김인남 회장 〈예 육군 중위〉

"전임 재향군인회 회장의 업 적에 누가 되지 않게 재향군인 회를 잘 이끌어 회원들과 소통 하는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안보·친목·명예단

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통사고 줄이기' 등 국민안전 발전에도 책임을 다할 것이다."



충청북도 향군 고종훈 회장 〈예 육군 병장〉

"국가안보의 제2보루로서 역 할수행과 회원 간의 친목과 복 지향상을 도모하고 국가발전과 사회 공익증진에 기여하는데 최 선을 다하겠다." "투철한 국가 관과 안보관으로 지역사회발전

을 선도하고 충청북도재향군인회가 전국 제일의 재향군 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대전 · 충남 향군 박재운 회장 〈예 육군 소령〉

"우리 사회는 경제난 극복과 번영의 통일 한국을 이룩해 세 계 속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서야 할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향 군회원이 일치단결해 신명을 바 쳐 조국을 지켜온 우국충정을

총결집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향군으로서 의 사명과 역할수행에 분발해야 한다."



경상북도 향군 양정석 회장 〈예 육군 중사〉

"건전하고 투명한 회운영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향군 회를 강한 조직으로 되살리고, 도향군 발전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회발 전에 반영하겠다". "여성회 및

청년단의 봉사와 안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국민들로부 터 신뢰와 존경받는 향군회를 만들겠다."





회장 **김대성** (예 육군 병장)

경기 안산시회



회장 김성수 (예 육군 소령)

충남 서천군회



회장 **강성민** (예 육군 하사)



회장 권춘궁 (예 육군 일병)

경남 창원 진해구회



회장 **조응제** (예 육군 중령)



회장 **김광식** (예 육군 병장)



회장 **이준호** (예 해병 병장)

광주 서구회



회장 **정병일** (예 육군 중위)



회장 김수준 (예 육군 병장)

경남 창원 의창·성산구호



회장 **정인규** (예 육군 병장)

인천 동구회



회장 **최인수** (예 육군 일병)



회장 **김원섭** (예 해병 병장)

전남 구례군회



회장 유창상 (예 육군 병장)



회장 김형섭 (예 육군 이병)



회장 고민호 (예 해군 소위)

경기 고양시회



회장 **구자현** (예 육군 소령)





회장 김순강 (예 육군 병장)

전남 장성군회



회장 **변성석** (예 육군 상병)

경북 청도군회



회장 박준석 (예 육군 소령)

경기 동두천시회



회장 **유재중** (예 육군 대위)

강원 춘천시회



회장 **이규옥** (예 육군 병장)

경북 경산시회



회장 **유윤선** (예 육군 중위)

경남 창원 마산합포・회원구회



회장 **최연호** (예 육군 병장)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 대 한 민국 재 향 군 인 회



신성한 국방의무를 다한 전우들이여! 대한민국 최고·최대 <mark>안보단체인</mark> 향군회원 되어 <mark>복지혜택 받으세요~!!!</mark>

향군회원 NH농협카드 발급 안내

■ 향군회원 및 자녀 장학금 지급 : 년 850명 / 2억 2천만 원

■ 향군 편의 시설 할인

① 중앙고속: 국내·외 관광 여행권 특별우대 ② 충주호 관광선 승선권: 30% 할인 ③ 울릉도 향군복지회관 숙박비: 10% 할인

④ 금강산 콘도: 27~60% 할인 ⑤ 상조회 가입시 : 향군회원 특별할인

⑥ 통일전망대 입장료: 50% 할인 ■향군 우대가맹점 할인 원 (전국 1,400여 개 사업소 : 향군 홈페이지 참조) ① 타이어 뱅크: 13~20% 할인 ② 현대/기아차 정비료: 10% 할인

③ (주)금강보청기: 25% 할인 ④ 기타: 10~30% 할인 ■군 체력단련장 이용 시: 10% 할인 ■국방부/각 군 복지시설 이용 혜택 등

대상 기존회원 또는 신규가입회원(향군 홈페이지 참조) 모두 발급 가능 ① 육·해·공.해병대에서 군복무를 마친 예비역 ②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자 ③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군번소지자) ④ 재향군인회 여성회원

- 전국 농협판매장(하나로 마트, 하나로 클럽, 농협몰 등) 이용 시 5% 채움 포인트 적립
- GS칼텍스 주유(충전)소: 휘발유 60원, LPG 40원 할인(리터당) ■ 영화, 커피, 서적 20% 할인:

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 스타벅스, 커피빈, 탐앤탐스, 교보/영풍문고, 인터파크, 예스24, 알라딘 등

- 주요 패밀리레스토랑(아웃백, VIPS, TGIF) 20% 할인
- 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 시 5% 할인(알뜰폰 제외)
- 전국 주요 놀이공원 할인 또는 무료입장 :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한국민속촌, 캐리비안베이, 캘리포니아비치(경주월드), 아쿠아환타지아, 전주시동물원 등

■ 교통카드 기능 탑재 등 전국 가맹점 할인

방법 및 절차

- 온 라 인 : 인터넷 URL 링크를 통한 카드 신청(항군 및 항우산업 홈페이지) - 오프라인 : 개인별 '신청서' 작성 → 지회 / 항우산업(주) 종합 → NH농협 송부 / 적격성 판단 → 카드 발급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hvangwoo.co.kr) 참조하세요.

향군역사 바로알기 ⑥

호국용사들의 명예 고양, 국립묘지 안장사업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2월7일 국가보 훈쳐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가 '20년 미만 10년 이상 장기 군 복무자의 국립묘지 안장 폐지'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군, 20년미만 10년이상 군 복무자 '국립묘지 안장폐지 권고'철회 요구

향군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국립묘지 안장대 상에서 장기 군 복무자들을 제외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 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또 국가에 봉사하고 자 장기복무를 지원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군 조직 의 특수성 때문에 진급이 안 되면 본의 아니게 전역 해야 하는 장기복무자들의 희생을 외면하는 것은 국가로서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보훈혁신위 권고안 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보훈혁신위는 보훈처에 낸 권고안에서 '10 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 군 복무자에게 국립묘지 안 장 자격을 부여한 규정은 폐지한다.' 고 했다.

대신 '안장 대상은 독립유공자, 전사자, 순직자, 참전유공자, 공권력에 의한 집단 희생자, 민주화 운 동 사망자, 사회 공헌 사망자 등으로 한정한다.' 고 한바 있다.

1980년 11월 국립묘지령 개정 국립묘지 추가 건립 문제 대두

따라서 이번 회에는 국립묘지 안장 사업과 향군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국립묘지는 6 · 25전쟁에서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호국영령을 추모하기위해 1955년 7월 15일 서울 동작동에 국군묘지로 만들어 출발했다.

그 후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경찰관 및 대간첩작 전에 참가하여 전사한 향토예비군으로 확대되면서 명칭이 국립묘지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국립묘지의 안장능력이 한계에 이르게 되자 국립묘지령 제3조에 의해 안장대상을 엄격하게 통제해 왔다. 그리고 1976년 4월 14일 대전유성에 대전국립묘지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1979년 4월 1일부터 공사를 본격 착수하여 1985년 11월 13일 전체 면적 약 322만㎡(97 만 4천평)의 현 국립대전현충원을 준공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향군 본회는 1979년 6 · 25전쟁에 참전했 거나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혁혁한 공을 세운 군인 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20년이상 장기근속자와 훈장을 받은 유공자들 까지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여 1980년 11월 18일 국립묘지령이 개정되었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자가 크게 늘어났다. 1973년부터 1981년까지 185명 이던 것이 1982년부터 1989년 까지 8년 동안 622명으로 증가되어 국립묘지의 추가 건립문제가 대두되었다.

향군 호국용사묘지, 국립호국원으로 영천부터 올해 괴산까지 호국성지로 자리매김

따라서 향군은 1994년 향군호국용사 묘지조성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 후 3년 만인 1997년 9월 2일 영천호국용사묘지 기공식을 가졌으며 2001년 4월 27일 역사적인 준공 식을 가졌다

이어 2002년 4월30일 임실호국용사묘지 준공식을 가짐으로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고 6 · 25 전쟁과 베트남 참전자, 20년 미만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등 호국용사들의 전용묘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아울러 2002년에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국립묘지로 승격됨으로써 호국용사들의 위훈과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 국가가 보답하고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게 되었다.

향군은 그 외에도 2008년 5월 경기 이천호국원을 개원하고 2015년에는 경남 산청호국원을 준공하였 으며 현재는 금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충북 괴산 호국원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경기 연천호국원 공사를 시작하고 제주에 추가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 공사가 마무리 되면 호국용사 선양사업이 제자리를 잡게 될 것이 다

이러한 가운데 보훈혁신위의 권고안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1천만 향군회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으며 향군은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하여 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홍보실〉

향군본부, 서초동으로 이전

본회가 10년간의 성수동 시대를 마감하고 3월1일 서초동 성서 공회 빌딩으로 본부를 이전, 서 초동 시대의 출발을 알리고 새로 운 도약을 다짐했다.

향군 본부는 2007년부터 성수 동 에스콰이어 빌딩에 둥지를 틀고 10년 동안 활동해 왔으나 건물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절감 차원에서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향군은 본부 사무실 이전으로 건물임대보증금이 대폭 절감되고 사무공간도 불요불급한 공간을 30%이상 줄임으로써 비용절감에 크게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새로운 마음과 굳은 결의로 더욱



향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여 국 민들께 신뢰와 사랑받는 향군으 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 순환로 2569(서초동 1365-16) 대한성서공회 빌딩/우편번호 06734〉

재향군인회 상조회 본사 이전

의전관리센터 신설, 양질의 장례서비스 제공



재향군인회상조회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역 1번 출구에 위치한 새 보금자리로 이전했다. 또 야탑역에 의전관리센터를 신 설하여 더 나은 장례서비스를 약 속했다.

재향군인회상조회 관계자는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의전관리센터 신설과 함께 본사를 이전 운영하게 됐다"며 "임직원들도 새로운 각오로 한차원 높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새보금자리에서 고객 분들에게 더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북 경산시 향군, 이웃돕기 솔선수범

회원 정성모아 성금 기탁 … "불우이웃위해 써 달라"



경산시 재향군인회(회장 유윤선)가 2월19일 경산시청을 방문,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마련한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관내 힘들게 생활하는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경산시에 기탁했다.

경산시청을 방문한 유윤선 회장 은 "우리 지역에서 힘겹게 살아가 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씩 정 성을 모았다"고 말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앞으로도 나눔으로 행복한 경산을 만들어가 는 데 경산시 향군이 앞장서 주시 기를 부탁드린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경기 동두천시 향군, 양순종 부회장 소외계층 겨울나기 지원 100만원 기탁



동두천시 향군 양순종 부회장이 2월18일 저소득 소외계층의 따뜻 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성금 100 만원을 기탁,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양순종 부회장은 "막바지 한파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조그마한 정성을 보이고 싶었다"며 "저의 작은 행동이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내는 사랑의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최용덕 동두천시 시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한 마음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따뜻한 마음을 담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양 부회장이 기탁·성금은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 득 소외계층의 난방비, 의료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3 · 1운동 100주년 태극기 게양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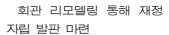
강원도 고성군 항군은 2월25일 토성면 운봉리 숭모공원에 태극기를 게양하며 $3 \cdot 1$ 운동 100주년 태극기 게양 운동을 펼쳤다.

◆위기 <mark>극복의 첨병</mark> / 경기 가평군 향군

지역 특성 살린 신규 사업 모색…수익구조 다변화

향군회관 재정비, 지역 중심 호국안보단체로 위상 정립

도농복합도시로 경기도 끝자락에 위치한 가평군 향군(회장 장석윤)은 경기도내에서 회 운영이 어려운 지역으로 꼽힌다.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가평군 향군은 6・25전적지가 많은 지역특성을 살려 꾸준한 안보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 노후화된 향군회관을 새롭게 단장,이를 통해 안정적 임대수입 확보와 사무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1997년 건립된 향군회관은 그 동안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잦은 누수 및 겨울철 결빙 등으로 보수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었고 열악한 실내환경으로 인해 안정적인 임대수입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가평군 향군은 지난 2017년 제65주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가평군수 및 가평군 의회 의원을 직접 향군회관으로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향군회관의 노후화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고 보수를 위한 보조금 1억8천만원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나머지 2천만원은 가평군향군에서 부담했다.

가평군 향군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획득은 지속적인 안보활동과 활발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다져진 향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극대화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가평군 향군은 회관 리모델링 으로 안정적 임대수입 확보를 통한 재정여건 개선과 정회원 확보 등 향군발전 기반을 구축 하고 사무환경 개선을 통한 업 무능률 향상이라는 일거삼득의



가평군 향군회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가평군은 6 · 25전쟁의 격전 지로 용문산지구, 가평지구 전 적비 등 많은 전적지가 자리잡 고 있다. 또 영연방, 캐나다, 호 주 등 많은 참전기념비도 위치 하고 있다.

참전 및 전적시설 관리 등 신규사업 발굴

가평군 향군은 지속적으로 이들 전적비와 기념비들을 찾아 행사를 지원하고 참배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런 연유로 지역 안보보훈단체의 중심으로 자리잡게되었고 회재정 자립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이들 전적비 및 기념비의 관리를 가평군에 요청했다. 가평군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군 향군은 2019년 4천200 만원의 보조금을 확보했다. 여 기에 전적비 및 기념비 관리주 체가 된다면 회 재정여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회 위상 정립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가평 향군의 노력 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2016년에 한국수력원자력 청평 양수발전소가 지역발전을 위해 실시한 사업에 응모해 500만원 의 사업비를 확보, 영연방 참전 비 안내판을 건립하기도 했다. 아울러 겨울축제장에 '가평 안 보관'을 운영해 달라진 병영생 활에 대한 체험기회와 건빵, 전 투식량 등을 판매해 불우참전용 사를 지원하기도 했다. 지역민 과 함께하는 안보단체로써의 위 상제고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7

뿐만 아니라 매년 주관하고 있는 6.25전쟁 기념행사에 관내 주요업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특별 기부금을 지원받아 행사에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지 출로 행사의 품격을 높이고 향 군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젊고 힘 있는 향군, 활력 넘치는 조직'으로

가평군 향군은 지난해 재정자 립도 평가를 통해 올해부터 미 자립회에서 자립회로 승격됐다. 물론 회관리모델링 등 환경여건 개선이 당장 직접적인 결실을 가져오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지 난해 취임한 제29대 장석윤 회 장을 중심으로 '젊고 힘있는 향 군, 활력 넘치는 조직' 으로의 변 화해 나가고 있다.

실질적인 향군 청년단 구성 및 운영, 읍·면 조직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및 유관단체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해 관내 참전 및 전 적시설에 대한 관리 등 신규사 업을 발굴하는 등 지역 봉사와 수익 사업을 병행해 나갈 예정 이다.

가평군 향군은 성공적인 회관 리모델링을 계기로 새롭게 출발하려 한다. 안정적인 회 운영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함께 호국안보단체로 위상을 공고히하여 내실있고 조직 운영으로지역 내 최고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적비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평군 향군회원들.

각급회 소식

이웃에 봉사하고 안보 계도에 팔 걷어 ... 향군 각급회 활동

(1월21일 ~ 2월20일)

서울시 향군

서울시회: 여성회는 설 연휴기간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 9곳에 있는 4500여명의 소외이웃들에게 떡국나눔 봉사활동 펼쳐.

대구시 향군

동구회: 1월25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 내어려운 이웃 및 북한이주여성 등 10명에게 온누리 상품권 전달.

서구회: 1월30일 서구제일종합복지관에 서 설 명절을 맞아 봉사활동 실시.



수성구회: 1월31일 협력 학교인 대구 일 마이스터고교 졸업식에 참석, 졸업 후 육군 훈련소에 군문의 길로 입소하는 모범 학생 들에게 장학금 수여.



달성군회 : 매주 토요일 비슬산 입구에서 산불예방활동 및 향군 홍보 활동 전개.

중구회: 매월 4째주 · 월요일 아침 남문 시장 네거리 및 경북여고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질서계도봉사활동.

달서구회: 2월12일 장기동 주민센터에서 여성회원을 대상으로 '2019년 한반도 안보 정세 전망' 이란 주제로 안보교육. 여성회는 2월13일 달서구 신당동복지회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반찬 봉사활동 실시.

경기도 향군



수원시회 : 여성회는 1월31일 설날을 앞두고 생계보조비 수혜회원 가정을 방문, 위문품 전달.

수원시 영화동회 : 1월21일 영화동 주민 센터에서 설을 맞아 불우이웃돕기 성금 50 만원 전달.

충청북도 향군

제천시회: 2월12일 어려운 이웃에게 전 달해 달라며 쌀10kg 10포대를 남현동행정복 지센터에 기탁.

충주시회: 여성회는 2월13일 새해를 맞이하여 향군회관에서 윷놀이 행사를 갖고화합과 친목 다져.

대전 충남 향군



대전 중구회: 1월28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과 나눌 떡국 떡 100㎏(50만원 상당)을 용두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 2월2일 떡국 떡 150상자(총360㎏/쌀4.5가마)를 지역 보훈유공자와 소외 향군회원 및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

대전 대덕구회: 여성회는 2월 매주 수 요일 대전역광장에서 노숙자 200여명을 대 상으로 배식봉사활동.



대전 동구회: 2월18일 우수동회인 홍도 동 향군을 방문하여 표창장 및 상품을 전달.

전라북도 향군

부안군회 : 여성회는 2월1일 설 명절을 맞아 부안 한국 신경외과 앞 광장과 동신아 파트 앞에서 위축된 전통 시장을 살리기 위한 홍보활동 전개.



군산시회: 1월25일 설 명절을 앞두고 롯데마트 사거리일대에서 지역경제 살리기 및 재래시장 활성화 캠페인 전개. 2월9일 한원컨벤션에서 베트남 이주 여성회 주최로 실시된 따뜻한 설을 맞이하는 베트남가족 초

청행사 참석.

김제시회: 1월30일 설 명절을 맞아 김제 대대를 방문, 장병들을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 2월13일 백구면 부용마을회관에서 이혈치료, 발맛사지, 손맛사지 등 봉사활동실시.

순창군회: 2월1일 설 명절을 맞아 순창 전통시장에서 어르신 집 들어드리기 봉사활 동을 실시하고 순창군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 전개.



고창군회 : 1월31일 전통시장 활성회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2월1일 설명절을 맞아 인접 군 부대를 방문, 국군장병들을 위문.

익산시회: 1월31일 설 명절을 앞두고 불 우회원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고 위로.

무주군회: 1월30일 회원 자녀 중 우수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전달.

전주시회: 청년단은 2월18일 전주시 향 토방위를 담당하는 전주대대를 방문, 봉사 활동 등 상호 협조사안 논의.

임실군회 : 2월18일 35사단 신교대대 수류탄 교장에서 국가와 부대를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자신을 희생한 故김범수 대위 15주기 추모 행사 참석.

광주 전남 향군



광주 전남도회: 1월31일 시 군 구회 초 임회장 8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2019 년 활동방향과 회무소개.



해남군회 : 여성회는 2월18일 해남희망 원에서 이 미용 봉사활동 전개.

목포시회 : 2월8일 설날을 맞이하여 불우 회원을 방문, 생계비 전달.

광양시회: 김백열 회장이 향군 LA지회 를 방문, 우의 강화. 보성군회: 여성회는 1월17일 벌교읍 군립 노인요양병원을 방문, 목욕 및 이발 봉사활동.

함평군회: 2월2일 여성회원과 함께 노인 복지회관을 방문. 배식 봉사활동.

경상북도 향군



영양군회: 1월25일 김형섭 신임 회장 취임식에서 찬조 받은 현물(쌀, 라면) 280만원 상당을 불우이웃을 위해 써 달라고 영양군에 정답

문경시회: 여성회는 2월13일 문경시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음식 및 배식, 설거지 등 봉사활동 실시.



경주시회 : 2월18일 회 활동이 왕성한 양 남면회 사무실 현판식 가져.



안동시회: 여성회는 2월20일 관내 요셉의 집에서 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눠.

경남 울산 향군



경남 울산시회 : 1월30일 민족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육군 제39보병사단을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 전달.

창원 의창성산구회 : 2월14일 창원시청 을 방문, 허성무 창원시장을 접견하고 향군

〈9면에 계속〉

〈8면에 이어〉 업무 현안 논의.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회 : 여성회는 1월30일 가음정동 관내에서 설맞이 대청소.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회 : 여성회는 1 월30일 유동인구가 많은 팔용동 시외버스터 미널 주변에서 설맞이 대청소 실시.



하동군회 : 1월23일 하동군통합방위협의 회와 함께 설명절을 맞아 군부대, 경찰서, 소 방서를 방문해 이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문품을 전달.

창원시 의창구 의창동회 : 1월27일 의

창동 복지회관에서 관내어르신들에게 자장 면 식사 대접.

양산시회 : 1월25일 역대 회장들을 초청 하여 회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함안군회: 여성회는 2월13일 39시단 신병 교육대 수료식 안내 및 음료 봉사활동 실시.

창녕군회 : 2월20일 창녕대대장, 예비군 지역대장 등 지휘관 11명을 초청, 위로행사

가져.

울산 중구회: 여성회는 1월28일 설 명절 을 맞아 7765부대 4대대를 방문하여 사랑의 떡국봉사활동 실시. 2월15일 중구청 2층 중 구컨벤션에서 회원복지 증진대회 개최.

울산 남구회 : 1월23일 야음상가시장에 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2월14일 중부로타리클럽 회 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그 리고 내일을 주제로 안보교육 실시. 2월1일 제주시, 14일 서귀포시에서 읍 면 동회 활성 화를 위한 읍 면 동회장 간담회 실시.

참전용사 보은과 감사의 마음 담아 이어지는 모금열기

'추모의 벽'건립 성금 기탁자 명단

(2019. 1. 25~ 2. 24)



향군을 방문, 추모의 벽 성금을 기탁하고 있는 박한기 합참의장.

□ 총 모금액: 430,661,183원 □ 향군 본부: 16,192,000원 □ 향군 산하업체: 23,650,500원 □ 향군 각급회 : 241,972,693원

서울시회 - 서울시회 팽태원 100,000원, 강서구회 손원태 50,000원, 조한구 30,000원,

김방길 30,000원, 이동일 10,000원, 이인영 10,000원, 민경진 10,000원, 강서구여성회 10 명 170,000원, 관악구회 박봉주 외 25명 1,000,000원, 성동광진구회 정찬희 외 300,000원, 동대문구회 윤영배 200,000원, 도 봉강북구회 100,000원, 금천구회 100,000원, 노원구회 김명동 50,000원, 한창희 10,000원, 백흥규 5,000원, 송좌규 10,000원, 장동선 100,000원, 심동길 10,000원, 김병태 10,000 원, 김영래 10,000원, 염희택 10,000원, 박봉 규 10,000원, 나춘환 10,000원, 강성구 10,000 원, 최재성 10,000원, 조태양 10,000원, 민천 기 10,000원, 박태현 10,000원, 정도화 10,000 원, 김기정 10,000원, 이양재 10,000원, 윤덕 규 10,000원, 고영석 10,000원, 김동환 10,000 원, 김영진 10,000원, 이학수 10,000원, 조병 열 30,000원, 박복례 10,000원, 정병도 10,000 원, 정병숙 10,000원, 배두심 20,000원, 이영 란 10,000원, 신영희 10,000원, 박금화 10,000 원, 김금순 10,000원, 이갑연 10,000원, 공막 례 10,000원, 고인옥 10,000원, 남춘자 10,000 원, 이점수 10,000원, 량춘산 20,000원, 한갑

성 20,000원, 신환섭 10,000원, 김광열 10,000 원, 백용수 10,000원, 신혜덕 5,000원, 노창현 3,000원, 송장섭 3,000원, 이풍우 5,000원, 용 석원 5,000원, 이용세 1,000원, 길선섭 5,000 원, 최완식 5,000원, 박종우 5,000원, 박성완 5,000원, 김정국 20,000원, 최영일 5,000원, 이 영세 1,000원, 도관희 10,000원, 전화배 10,000원, 지희일 10,000원, 김종철 10,000원, 김행오 10,000원, 김근익 10,000원, 김형렬 10,000원, 권영준 40,000원, 강남구회 이광일 100,000원, 서울시회 이용모 50,000원, 구로 구회 박순혁 100,000원, 어영순 5,000원, 김순 영 5,000원, 박복덕 10,000원,

고양시회 - 고양시회 130,000원 남양주시회 - 남양주시회 280,000원, 여주시회 - 여주시회 100,000원, 강원도회 - 양구군회 400,000원, 충북도회 - 제천시회 1,000,000원, 대전 · 충남도회 - 유성구회 127,000원, 경남·울산시회 - 남해군회 1,000,000원, 거창군회 윤병태 100,000원, 거창읍 여성회 100,000원,

제주도회 - 제주시회 2,500,000원,

시 · 도회 별 추모의 벽 모금 현황

서	울	21,693,000원
부	산	16,813,000원
대	구	9,760,280원
인	천	8,880,000원
경	기	21,962,000원
강	원	9,490,000원
충	북	15,508,000원
대전·	충남	21,502,000원
전	북	17,020,000원
광주·	전남	30,670,000원
경	북	25,799,000원
경남·울산		31,206,000원
제	주	9,302,400원
해외지회		8,550,013원

□ 기업/일반회원: 102,828,065원 박한기 대장 1,000,000원, 조선근 10,000원, 이병길 10,000원, 최훈 100,000원, 정회원 국 장 20,000원, 이태순 300,000원, 이근양

200,000원, 육군중령 정해균 100,000원

□참전친목단체/유관단체: 39,824,925원 정훈동우회 340,000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참전기념공원 내에 '추모의벽'을 건립하여 70여년 전 6.25 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미군 3만 6천명 카투사 8천명의 이름을 새겨 넣고자 합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 참전 영웅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때입니다. 뜻깊은 사업인 건립비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십시오. ※ 모금된 금액은 전액 '추모의 벽' 재단에 전달됩니다.

모금 계좌 안내

우리 1006-701-488707 국 민 801737-04-010172 농 협 317-0015-2392-71

• 예금주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문 의:02)417-5886



■ 창립 30주년 맞은 성우회 유삼남 회장 국방일보 인터뷰

"오랜 군 경험 바탕… 국가 안보 자문 소임 다할 것"

◆아직 성우회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을 위해 소개를 부탁드린다.

"성우회는 세계에서 유일한 예비역 장 군들만의 모임이다. 회원 모두가 육·해· 공군, 해병대 소위로 임관해 장군이 될 때 까지 최소한 30년 이상 군복을 입고 조국 에 헌신했다. 국가관·애국심·사명감 등 군인정신이 뼛속까지 차 있는 사람들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주요 안보 이슈에 대한 입장 발표 및 책자 발간으로 안보 정론형성 ▲국방 외교 지원 ▲예비역 조직 연계 ▲월간 『자유』지 발간을 통한 장병 안보·시사·교양 증진 ▲예비군 안보교육참여 ▲격오지 장병 위문활동 등이 있다."

◆지난 30년 동안 성우회가 우리 국방·안보에 어떤 공헌을 해왔나?

"성우회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슈가생길 때마다 안보 정론 형성에 주력해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제기됐을때는 안보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 우리군이 준비된 이후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한다고 건의했다.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도오랜군 생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력 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9·19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 육·해·공군 등 각 분야의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분석을 통해 관련책자를 발간하는 한편 여섯 차례에 걸쳐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에도 직접 우리의 견해를 전달했다."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안보환경 이 숨 가쁘게 변하는 상황에서 성우 회는 우리 국방・안보 지킴이로서 어 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성우회는 앞으로도 국가안보와 국방에 관한 자문단체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미동맹과 북한 비핵화, 자주국방 등 국방개혁, 장병 복지 및 예비역 보훈 등 정부의 안보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만에하나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다.

또 군 선배로서 현역 장병을 격려하고 성원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이다. 현역의 고충을 살피고 국민과 군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하고자 한다. 최근 일부 예비 역 선배들과 현역 후배들 사이에 불협화음 이 노출되고 있는데 성우회는 앞으로 성우 회원은 물론 각 군의 예비역 단체, 특히 현 역 후배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력 하는 데 더 힘을 기울이겠다.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 집단, 성우회가 되도록 노 력하겠다." ◆앞으로 성우회를 어떤 단체로 이 끌어나가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나?

"성우회도 미래지향적 가치, 비전에 대 한 고민이 많다. 많은 회원이 모여 고민한 결과 다섯 가지 비전을 설정했다. 첫째, 우 리는 국가방위에 헌신해온 전역 군인으로 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신 성한 소임을 계속한다. 둘째, 우리는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를 우선으로 활동하며 비정치 · 비영리 · 비종교 기본원칙을 준 수한다. 셋째,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완 전히 폐기하고 대남적화 전략을 포기할 때 까지 우리의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적 극 대응한다. 넷째, 우리는 한미동맹이 나 라의 안전과 번영의 기반임을 믿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 향상에 기여한다. 다섯째, 우리는 국가안보와 국방에 관한 정론 및 정책 개발에 노력하며 국민 안보의식 함양 을 위해 헌신한다."

◆그 외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6 · 25전쟁 때 패망 위기를 넘긴 것 도, 이후 국가가 발전한 것도 한미동맹이 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주변 강국들 사이에서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몇 배 많은 안보비용이 들었을 것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앞으



유삼남 성우회장.

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육ㆍ해ㆍ공군, 해병대의 합동작 전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오늘날 전쟁은 합동작전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 각 군의 균형발전을 법으로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사관학교, 초급장교 시절부터 합동작전 마인드를 습득하고 타군을 이해하는 문화 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 늘날 사회 풍토는 각자 이해관계를 추구하 며 분열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 국방 에 관한 대립이나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 다. 국가안보에는 보수, 진보, 여당, 야당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북한은 물론 주변 국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힘든 형국이 다. 베트남 패망의 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 듯이 국가가 무능하고 국민이 분열 · 반목 하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

〈끝〉

친목단체 활동

운영위원회의



갑종장교전우회 (회장 김영갑)는 2월 13일에 군인공제 회관에서 제26차 운영위원회를 거행했다.

정기총회



공병전우회 (회장 한봉희)는 1월 31일 국방컨벤션에서 2018년도 정기총회를 거행했다.

부사관 전우 신년회



부사관총연합회(회장 나순철)는 2월 21일 국회의원회 관에서 부사관 전우를 위한 신년회를 거행했다

정기총회



육군3사관학교총동문회 (회장 정인하)는 1월 24일 동문 회관에서 제31차 정기총회를 거행했다

정기총회



인사행정병과동우회(회장 정현봉)는 2월 22일 전쟁기 념관에서 2019년도 정기총회를 거행했다.

자연보호활동



정보동우회 (회장 박상수)는 2월 13일 서울대공원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서리풀 등산활동을 거행하였다



자각 증상없이 나타난 내 몸에 돌「담석증」... 식습관 개선 필요

담석증은 간, 담도, 담낭(쓸개)에 돌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위치에 따라 간내 담 관에 결석이 있는 경우 간내 담석, 총담관 에 결석이 있는 경우 총담관결석, 담낭에 결석이 있는 경우 담낭결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담낭에 결석이 있을 경우 나타나는 흔한 증상으로는 소화불량, 헛 배부름, 잦은 트 림, 오심, 식욕부진, 설사, 구토 등의 비특 이적인 증상 등이 있다.

원인

담석증의 위험인자로는 나이, 성별, 비 만, 급속한 체중감소, 고지혈증, 식이, 유 전적 요인, 기저질환, 약물 등이 있다. 유 병률은 특히, 40세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 하며 담석에 의한 증상도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잘발생한다. 또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데 이는 여성 호

르몬에 의한 담즙분비 억제 및 담낭 수축 기능 억제에 의한 담석 형성 촉진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진단 · 검사

담석증은 대부분 영상학적 검사로 진단 이 되며, 혈액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먼 저, 복부초음파검사는 담낭결석 진단의 예 민도가 95% 정도로 매우 높으면서 비침습 적이고 방사선 노출위험이 없어 담낭결석 을 진단하기 위해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또한, 간내담석 환자에서 일차 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복부CT 검사에서 도 조영증강 전 영상에서 담낭결석이 발견 되기도 하지만 5mm 이하의 작은 담석은 놓치기 쉽다.

그러나 간내 담석증에서는 결석의 위치 와 협착의 정도 및 범위를 보여주어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총담관결석증에서도 초음파를 상용 할 수 있으나, 핵자기공명영상(MRI)이

민감도95%, 특이도 98%의 매우 정확하여 표본검사로 사용할 수 있다.

치료방법

▶내과적 치료

담낭결석은 담석의 내과적 치료 방법은 크게 담석을 약물을 통해 용해시키는 방법 과 담석을 분쇄하는 방법, 그리고, 경피담 낭담석 제거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치료의 대상 및 효과가 제한적이고 치료 방법에 따라 재발 및 합 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복강경담낭절제 술이 도입되어 널리 시행된 이후로는 그 사용이 제한적이다.

▶외과적 치료

담낭결석은 담낭을 제거하는 절제술이 있으며 수술 방법으로는 개복 또는 복강경 이 있으며 최근에는 로봇으로 수술을 시행 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외과적 치료는 복강경담낭절제술이 도 입되고 보편화되면서 대부분의 담낭절제 술을 복강경을 이용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그리고 외과적 담낭절제술의 적응증으로 는 증상이 있는 담낭결석증, 급성 담낭염, 만성담낭염, 무결석 담낭염 등이 있으며, 담석의 크기가 3cm 이상인 경우, 비기능성 담낭, 담낭벽의 비후, 석회화 담낭 또는 도 재담낭, 담낭용종, 장티푸스 보균자 등은 증상이 없더라고 수술을 권고하고 있다.

예방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 지방, 탄수화물 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콜레스테롤 담석 발생의 위험도를 높이는 반면, 불포화지 방, 식이섬유, 비타민 C, 칼슘 등은 위험도 를 낮춘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평소 고콜레스테롤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단백 질과 비타민 등을 적절히 섭취하는 식습관 이 필요하고,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꾸준 한 운동으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친목단체 소식 (날짜순)

☞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재향여군협의회 : 3월13일 삼정호텔에서 운영위원회의
- **▲포병전우회** : 3월14일 서대문독립공원에 서 자연보호행사. 3월29일 전쟁기념관에서 창립 16주년 기념행사.
- ▲한국유격군백호부대전우회 : 3월15일 숭 의가든에서 정기총회.
- ▲갑종장교전우회 : 3월21일 군인공제회관 에서 정기총회
- ▲공병전우회 : 3월26일 육군회관에서 병과 창설기념행사.
- ▲정보동우회: 3월27일 용산 푸주옥에서 정 기총회.
- ▲공군전우회 : 3월27일 공군회관에서 정기
- ▲국군간호사관학교총동문회 : 3월28일 향 군 중회의실에서 이사회의
- ▲6.25참전유공자회 : 3월28일 서초구민 회관에서 정기총회.
-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우여! 어디에 …

- 장정씨가 36년 전 철원 오지리에서 동고 동락한 전우, 충남 청양이 고향인 김요복씨 (010 -2828-5350) 를 찾습니다.
- •이대길씨가 1970년 18 육군병원 근무 당 시 정경자 대위님과 전우(서울 최국주, 진주 조영호)들을 찾습니다. (010-9394-2849)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인쇄인 배성한 간 별월 간

2013년 12월 5일 등록번호 서울다 10757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LS타워(성수동 1가) 전화 (02)416-0923 팩스 (02)417-5416

재향군인신문 발해인 김진호 편집인 안찬희

🔵 여행정보

3월에 가볼만한 곳

광양 매화축제 2019

광양 매화축제가 3월8일부터 17일까지 전 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지막 1길 55 일대에서 열린다.

'꽃길따라 물길따라 섬진강 매화여행'을 주제로 열리는 축제는 새하얀 눈꽃이 가득 한 섬진강변 매화마을을 중심으로 해마다 3 월 중순부터 말까지 개최된다.

매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잡은 매화축제 는 광양만의 독특한 맛과 멋스러움을 더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광양매화축제위원회 : 061-797-1987, 3333>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2019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3월21일부터 24일까지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일대에서 열린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진도 신비의 바닷길은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 약 2.8km가 조수간만의 차이로 수 심이 낮아질 때 바닷길이 드러나는 현상 이지만 40여m의 폭으로 똑같은 너비의 길이 바닷속에 만들어진다는데 신비로움 이 있다.

매년 이 현상을 보기 위해 국내외 관광객 100여만명이 몰려와 바닷길이 완전히 드러 나 있는 약 1시간의 기적을 구경한다.

축제 기간 중 진도군에서는 대한민국 민 속 문화 예술 특구로 지정된 진도군의 전통 민속을 선보이고 진도개, 홍주 등을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진도군관광진흥협의회 : 1588-9601〉

논산딸기축제 2019

50여년의 재배역사를 가지고 있는 논산딸 기축제가 3월20일부터 24일까지 충청남도 논산시 부적면 백일헌로 일대에서 열린다.

기름진 논산평야의 비옥한 토양과 맑은 물, 풍부한 일조량 등 천혜의 자연조건 속에 서 천적과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되어 맛과 향이 우수한 논산딸기는 지난 2012~13년에는 전국 탑딸기 품질평가회에서 최우수 품질상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논산 딸기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논산청정딸기 산 업특구가 『우수특구』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한민국명가명품대상』을 3년연속 수상 하여 충청남도대표 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논산딸기축제는 청정 논산딸기의 맛과 그윽 한 향을 느끼게 할 것이다.

〈논산딸기축제추진위원회 : 041-746-8386

제주들불축제 2019

1997년 시작되어 올해로 21회째를 맞은 제 주들불축제가 3월7일부터 10일까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 59-8 일대에서 열린다.

제주들불축제는 소와 말 등 가축 방목을 위해 숭산간 초지의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 충을 구제하기 위해 마을별로 늦겨울에서 초 봄 사이 목야지 들판에 불을 놓았던 '방 애'라는 제주의 옛 목축문화를 현대적 감각 에 맞게 재현하여 관광 상품화한 문화관광 축제이다.

제주의 새봄을 알리는 희망의 축제로 '들 불의 희망, 세계로 번지다'의 의미를 안고 더욱 다채롭고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을 기다리고 있다.

⟨제주시청 관광진흥과 064-728-2751⟩

향군장학기금

※ 기간: '19.1월 23일 ~2월 22일

※ 단위: 기부구좌(기부누계), 1구좌 1만원

▶ 단체

• 인천시 남동구재향군인회 13(259)

▶ 개인

- 향우산업 대표이사 허재수 10(100)
- 인천시 남동구재향군인회 회장 박찬홍 10(90), 육군부회장 권혁기 2(8), 해군부회 장 장수열 2(8), 공군부회장 김재원 2(8), 해병부회장 한도현 2(8), 감사 박태선 1(3), 이사 구인회 1(4), 권요셉 1(4), 김석 운 1(4), 김양철 1(4), 박종우 1(4), 송재복 1(4), 연경민 1(4), 이규환 1(4), 이영식 1(4), 전영선 1(4), 전유형 1(4), 서길동 1(3), 임춘원 1(3), 고병식 1(2), 김학환 1(2), 오두석 1, 사무국장 조용재 2(6)
- 일반회원 JSA 경비대대 이한수 1(14)
- 일반회원 ㈜대창농축 오승훈 1(32)
- 일반회원 대구시설관리공단 신현우 1(32)
- 일반회원 다온중학교 교사 이미래 1(29)
- 일반회원 우리은행 신현정 2(22)

▶ 정기 기부

- 일반회원 이정호 1(253)
- 권율부대 선거이 연대 강모아 1(43)
-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417-5887)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도 기부현황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계좌번호: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 금 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향군 안보활동 기조

『국가안보단체』 로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보활동!

국민안보의식 계도 분야

중 점	내 용	기 조
	1 북한의 실체 인식	☞ 북한의 실상 교육
1. 북한위협의 실체를	2 대북 정책 기조	☞ 북핵·미사일 해결 전제로 대화/교류
올바르게 알게 하는 것	3 북핵·미사일 대비	□ 비핵화 전제 하, 구체적 대응책 선행
	4 자랑스런 대한민국	(대한민국 어제와 오늘) 안보교육
이 그에 가키를 가가기의	종교적 신앙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 병역 기피수단 악용 대책 / 현역병과 형평성 유지 ☞ 거부자 사유가 명확하고 투명 (객관적 심사 가능)
2. 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가 육성 되도록 하는 것	6 군 폄하 및 조직 통합 저해	당 상황 고려 대응
4 6 424 92 7	7 군 사기 진작	☞ 군인(대)의 자긍심 고양 활동
	8 한・미 동맹	☞ 굳건한 한·미 동맹 유지 ☞ 향군 주도 동맹 활동
3. 한미동맹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한미 동맹을 공고히	9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독자적인 안보역량 포함한 조건 완성 시
하는 것	10 사드배치 운용	☞ 사드 운영에 제한적 상황 발생 시 대응

국가 안보정책 지원 / 기타 분야

C HALLES HALL AND THE COLUMN TO THE COLUMN T				
중 점	내 용	기 조		
●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 북 핵 대응 핵심전력 조기 전력화 지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및 평화체제 구축		☞ 완전한 북 핵 폐기를 위한 정책 지지		
●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11 국가안보 정책지원	☞ 장병 복무여건 지지		
●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 독자적인 안보역량 구축 후 전환 ☞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대응능력 확보시 전환		
● 국민외교 및 공공 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 국가안보를 위한 당당한 협력외교 지지		
기 타	12 기 타	☞ 향군 차원에서 대응 필요하다고 판단 시 · 명분과 국민적 공감대 있을 시 · 현안안보점검회의를 통한 주제 선정 / 대응 · 향군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		



₩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 재향군인회!